

전주시-LX, 수소시범도시 조성 적극 협력

LX, 수소충전소 구축·수소시내버스 도입·홍보용 랩핑 지원 등에 10억1500만원 기탁

전주시가 한국토정정보공사(LX)로부터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버스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아 성공적인 수소시범도시 조성에 탄력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시와 한국토정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28일 한국토정정보공사 본사(덕진구 기지로 120)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기승 한국토정정보공사 부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기부금 증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부금 증정식은 지난 6월 전주시와 한국토정정보공사가 성공적인 수소도시 구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이날 한국토정정보공사는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1기 구축에 7억5000만 원, 수소시내버스 5대 도입에 1억8000만 원, 수소시내버스 17대 도배광고(랩핑) 지원에 8500만 원 등 총 10억1500만 원을 전주시에 기탁하게 됐다.

시는 이번 기부금을 토대로 현재 운영 중인 송전동 수소충전소를 포함해 내년 말까지 총 5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승용차와 수소시내버스



전주시와 한국토정정보공사(시장 김정렬)는 28일 한국토정정보공사 본사(덕진구 기지로 120)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기승 한국토정정보공사 부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기부금 증정식을 개최했다.

등 수소자동차를 내년 말까지 900여 대를 보급기로 했다. 또 수소시범도시를 홍보하는 버스 도배광고가 붙여진 수소시내버스 17대를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해 운행에 나서기로 했다.

나아가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목표에 부응하고자 오는 2025년

까지 수소충전소를 8곳까지 늘리고 수소자동차도 2000여 대까지 보급한다는 중장기 계획도 세웠다. 여기에 수소놀이체험관 건립 및 수소연료전지 실증사업 등을 통해 수소도시로 도약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와 한국토정정보공사는

지난 6월 30일 수소산업 중심의 지역발전과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수소인프라 구축에 힘을 모아 친환경 수소미래도시를 조성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김기승 한국토정정보공사 부사장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앞장서서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 국가적 사명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며 "한국토정정보공사가 전주시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수소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가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도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시는 한국토정정보공사에 감사드린다"며 "친환경 수소서비스의 보급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통해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와 한국토정정보공사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트윈 서비스 모델을 구현, 행정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3D 버추얼 전주 기반 행정 인허가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맛배달' 가맹점 모집 순항

'중개수수료 0%' 신청 업소 760여개 넘어

중개수수료를 없앤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이 내년 2월 출시를 앞두고 가맹점 모집이 착착 이뤄지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전주맛배달' 가맹점 모집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760여 개의 업소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민간배달앱의 경우 6~12%로 수수료 부담이 높지만, '전주맛배달'은 중개수수료가 0%인데다 가입비, 광고료도 없어 가맹점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전주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를 통해 10%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착순 4000개 업소에 친환경 배달봉투 등 기념상품이 지급된다는 점도 신속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17일 전주온통 소식지(SNS)를 통해 '전주맛배달' 가맹점 모집 소식을 확인한 시민들은 "기대어울 애플, 반가운 소식"이라며 배달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한 시민은 "수수료 부담이 없는 만큼 많은 점주들이 동참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 앱이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15일부터 완주군 혁신도시 일부를 포함해 전주지역 배달 가능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을 시작한 시는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를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코리아센터(앱 운영사)와 함께 전담인력 12명을 구성해 지역 내 가맹점을 방문해 홍보 및 필요서류 접수에 나서고, 배달앱 포스 프로그램 설치와 매뉴얼 교육 등 서비스 준비도 돕기로 했다.

여기에 시는 배달라이더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 완산·덕진구지회, 대학로 상점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연대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프로모션도 점차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가맹점 신청은 전주맛배달 홈페이지(www.jard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맛배달 고객센터(1899-1010)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정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으로 도입될 예정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모집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전주맛배달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점 모집에 소상공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서부신시가지에 플랫폼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전주시, 의자·음수대·냉·난방기·CCTV 등 갖춰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업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플랫폼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됐다.

전주시는 총사업비 4800만 원을 투입해 서부신시가지 비보이광장(효자동3가 1538-9)에 플랫폼 이동 노동자 쉼터를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 이동 노동자 쉼터는 배달·

택배 노동자와 대리운전,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설치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이 잠시 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33㎡(약 10평) 규모에 의자, 테이블, 음수대, 냉·난방기, 휴대전화 충전시설, CCTV, 출입관리시스템 등을 갖췄다.

전주시 공공시설 운영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대로 운영될 예정인 이 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공공근로 인력이 배치돼 관리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자원봉사자대회' 열고 유튜브 중계

전주시가 올 한 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을 비롯해 지역 곳곳에서 나눔·봉사에 힘쓴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28일 제17회 전주시 자원봉사자대회를 열고 유튜브를 통해 중계했다. 자원봉사자대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수상자

를 찾아가 표창장을 전달하고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2021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안현숙 원불교봉공회전북지회 회장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은 김희진 전북마음모아 회장에게 표창장이 전수됐다. 또 지난 5개월간 코로나19 예방



접종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을 지원한 봉사자 70명에게 전주시장 표창이,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한 자원봉사자 43명에게 전주시의회 의장과 중앙자원봉사센터장, 전주시자

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이 각각 수여됐다.

시상식 이후에는 최원규 전북대학교 교수가 '자원봉사 플루리 조직의 생애사' 특강을 했으며, '나나레'의 퓨전 국악공연도 진행됐다.

황의욱 이사장은 "올 한 해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덕진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 활동 및 방역활동에 몰심인만큼 함께해주신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한 전주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모바일 앱 도입

전주시, 내년 4월 '빠기' 서비스 개시

대형폐기물 배출 시 필증을 인쇄해 부착하지 않고 배출부터 카드결제까지 모바일로 처리하는 새로운 배출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주시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빠기'를 내년 4월 도입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대형폐기물 처리를 위해서는 시에 전화를 걸어 신청을 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 배출 신고를 한 뒤 필증을 출력해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해야 한다.

새로 도입 예정인 '빠기' 서비스는 시민들이 폐기할 물품을 배출한 뒤 모바일 앱에 배출장소 입력 및 배출물품 사진을 업로드하면, 앱의 사물인식 AI

기능을 통해 처리 수수료가 자동 산출돼 금액을 확인하고 모바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결제 후에는 배출번호가 생성돼 대형폐기물 담당자와 수거업체에 정보가 전달되는 만큼 별도의 필증 부착 과정이 사라지게 된다.

또 무거운 대형폐기물 배출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방문 수거 '내려드림'(유료)과 중고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재활용 중고거래가 가능한 '중고매입'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는 다음 달 (쉬는)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두 달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 달간 시범운영을 진행해 내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